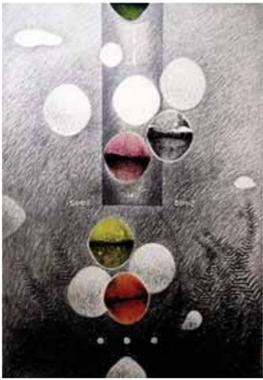


“‘히로애락’ 표현하는 민속악 공부에 푹 빠졌죠”



육경란 작 'seed-healing'

국제판화워크숍

우제길미술관 11~23일

우제길미술관이 11일부터 23일까지 '시간의 흔적'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판화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제길미술관은 지난 2004년부터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판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동귀환, 유준걸, 왕가중, 왕하, 축연춘 등 중국 작가와 일본 작가 도보상이 초대됐다. 국내에서는 박선주, 우제길, 육경란, 전동하 작가 등이 참여해 판화예술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준다.

참여 작가들은 한국, 중국, 일본 거리의 풍경 이미지와 그들만의 언어로 인물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유준걸은 묘사의 미와 색의 적절한 배합이 인상적인 채색목판화 작품을 전시하고, 동귀환은 흑과 백의 선명함이 인상적인 작품을 보여준다. 왕하는 대담성과 단순성을 살린 흑백목판화기법으로 스케일이 큰 인체의 표정을 담는다.

도보상은 섬세하고 명확한 도시의 풍경 이미지를 정교한 흑백사진처럼 묘사해 보여주고, 반면 축연춘은 실크스크린기법으로 색의 선명함과 이미지를 고풍적인 느낌을 살린 작품을 전시한다.

우제길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기억의 흔적들을 어둠 안에 자리한 희망의 빛으로 묘사한 풍경들을 선보이고, 육경란은 환형기법을 활용해 판화의 예술성과 창작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보여준다. 전시 오픈식은 14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24-660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성심은 전남대 명예교수, 스승 김죽파 가야금 산조 맥 잇기 한창

“가야금은 재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떨어져야 한다.”

할아버지가 늘상 하던 이 말은 가야금 명인 김죽파(1911~1989) 선생의 음악 철학이 되었다. 그녀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할아버지는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로 꼽히는 영암 출신 고(故) 김창조(1856~1919) 선생이다.

그녀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성심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전남대 명예교수 역시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서울대 국악과 재학 시절인 1978년부터 김 선생 문하에서 가야금을 배운 성 교수는 죽파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생님 곁을 지켰다. 제자들에게 살가웠던 김 선생은 집을 방문할 때면 항상 커피에 연유를 타주곤 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기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것, 사람 냄새 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죠. 제가 대학에서 제자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올 여름 전남대를 정년 퇴임한 성 교수는 김죽파 산조의 맥을 잇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 교수는 정년 후 서울 녹음실에서 고수 윤호세(전남대 국악과 겸임교수)씨와 함께 ‘김죽파류 산조’ 음반 제작에 열정을 쏟았고 결과물을 내놓았다. 6년 전에 대중음악을 담은 음반은 낸 적이 있지만 산조 음반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악보집도 발간했다.

“선생님의 산조를 녹음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었어요. 좀 더 좋을 때 하자, 좋을 때 하자 하다 이렇게 늦어졌네요. 이번 녹음도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으나 걱정되기도 하구요. 다양한 산조가 있지만 선생님 가락은 재미있고 여성적이에요. 섬세한 농현도 특징입니다.”

대개 교수들이 정년을 하면 학교에 적을 두고 강의 등을 하는 게 상례지만 성 교수는 아예 방을 뺐다. 얼마전부터는 또 다른 공부를 시작했다. ‘죽파금연구회’를 만들어 제자들과 함께 한달에 두번 정도 김죽파류 큰 산조(55분)를 연주한다.

“정년과 동시에 새로운 음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민속악에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산조 가락들이 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즐겨야한다고 생각했죠. 국악이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혼자 할 때는 자주 연주하기 어렵지만 제자들과 함께 연주 하니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후배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절입니다.”

산조 음반·악보집 발간 ‘죽파금연구회’ 만들어 제자들과 연주 ‘새로운 재미’

성 교수는 전남대 국악과의 산증인이다. 1980년 전남대 음악교육과에 감사로운 성 교수는 1982년 국악과 창립과 함께 교수로 옮겨갔고, 32년 4개월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초창기에 의욕이 넘쳤죠. 당시에는 악보 없이 구음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악보 교육을 하는 게 어려웠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초기 제자들한테는 미안하기도 해요. 의욕은 넘쳤지만 들은 풍월대로 가르치는 영무새 교육이기도 했으니까요. 1990년말부터 ‘가르친다’는 것에 의미가 생겼어요.”

성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독주회 때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 첼리스트 박문경씨 등 지역 클래식 연주자들과의 무대를 꼭 마련하곤 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서양 악기들과의 협연을 통해 국악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했다.

대학에서 정악을 전공한 그녀는 지금 민속악의 매력에 빠져 있다.

“정악이 무언가 짜여 있고 정제된 느낌이라면 민속악은 사람의 히로애락을 그대로 표현하죠. 슬프고, 아프고, 기쁜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민속악의 재미와 흥이 이제서야 제 것이 된 기분이에요.”

성 교수는 정년 후 “진짜 내 공부를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스승의 발자취를 잇는 것과 함께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싶은 게 그녀의 바람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추천위 구성안 의결

재단·시·시의회 각 2명씩

광주문화재단이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안과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사무처장 선임을 위해 재단 추천 2명, 시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등으로 사무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사무처장 공모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책연구팀을 강화하는 등 조직도 손보기로 했다. 도시문화교류팀을 신설하고, 기금조성담당TF팀을 새로 만들어 전담직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

또 효율적인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을 위해 공연전시팀도 신설해 자체 기획 공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국윤미술관 ‘남도조각가협 초대전’

20일까지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광주시의 후원으로 오는 20일까지 ‘남도조각가협회 초대전’을 개최한다.

남도조각가협회(회장 주미희)는 학연을 떠나 남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 작가들의 모임이다. 1978년 남도조각회 창립식을 가졌으며, 1979년 전일미술관에서 제1회 전시회를 여는 등 해마다 정기전을 통해 다양한 조각의 다양한 소재와 기법들을 공유하고 있다.

원로 작가부터 중견, 신진 작가들이 함께 꾸미는 이번 전시는 제31회 정기전으로 강동호·김기현·김선명·김철수·김현진·김홍곤·마영진·박광구·박상호·백상



주미희 작 '세가지 운명 II'

옥·류종원·선명희·윤영월·오혜경·위재환·이기원·이인호·이정용·이재길·장규호·장용훈·전범수·정준표·조은경·주미희·하영생·황경숙씨 등 모두 2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문의 062-232-733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꾸꾸루꾸꾸 생명평화 영화제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 17일 푸른길 기차

제2회 꾸꾸루꾸꾸 생명평화 영화제가 오는 17일 오후 7시 푸른길 기차(남광주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열린다. 생태원기모임 ‘꾸꾸루꾸꾸’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의 상영작은 ‘더 코브: 슬픈 돌고래의 진실’(2009)이다.



이 영화는 돌고래 조련사들에게 대부라도 같은 릭 오베리가 이제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린 다큐로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가 배경이다.

2만 3000마리의 야생 돌고래가 무분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중 촬영, 녹음 전문가, 특수 효과 아티스트, 세계적 수준의 프리다이빙들로 구성된 이들의 활약을 담고 있다.

개인입을 가져오면 따뜻한 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물물교환 시간도 준비돼 있다. 문의 010-4635-85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막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일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